



교단 제65차 정기총회가 지난 16일(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벧전 5:8)라는 주제 아래 안양시 만안구안양로 193 은혜와진리교회에서 열려 더욱 현신하고 정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좌측 아래 원내 사진은 총회원들에게 당선인사를 하고 있는 신임총회장 조남영 목사)

## 아름다운 질서와 협력, 거룩의 전통을 더욱 굳건히



신임총회장 조남영 목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65차 정기총회가 지난 16일(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벧전 5:8)라는 주제 아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은혜와진리교회에서 열려 한국교회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시명을 확인하는 한편 한국교회에 깊숙이 침투해 오는 종교다원주의의 사상과 혼합주의를 비롯 이단사이비를 배격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사용하기 위해 한신할 것을 다짐했다.

천 여 명의 총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총회는 16일(월) 오전 10시 등록접수를 시작하여 점심식사 후 오후 1시 개회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교단 총무 김병목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교단 총회장 진등용 목사의 인사말씀이 있었다.

진 목사는 "지난 회기 총회 임원들이 겸손한 자세로 한신하여 주셔서 막중한 직무를 감당할 수 있었으며, 지난 일년 동안 함께해 주고 또 기도로 후원해 주신 회

### 제65차 정기총회, 1천 여 총회원 '한마음'

원들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계속해서 부총회장 조원의 목사의 대표기도도 북한 선교위원장 성정자 목사의 성경봉독, 은혜와진리교회 장로성기단의 찬양, 교단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의 설교로 이어졌다.

조용목 목사는 베전 5:8 말씀을 본문으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오늘 날 동성애 합법화 시도 등 정치 사회적으로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교회에도 이에 대한 경계심이 하물어지고 종교 다원주의와 세속화 경향이 마치 쓰나미처럼 밀려와 면연해지는 것은 철두철미 성경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지 못하여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때문"이라고 전했다.

조 목사는 특히 "예수님만이 구세주라고 외치면서 한편으로 종교 다원주의, 혼합주의, 일자주의를 두둔하고 협력하는 행위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구속사역을 쓸데

없는 공연한 일로 만드는 무서운 범죄행위"라고 강조 했다.

이어서 교단의 존재 이유와 비전에 관해 말씀하는

가운데 "세속적인 명예와 세력을 추구하지 않으며 추호도 비전과 불의와 탐욕하지 아니하고 성경적인 구원의 도리를 널리 전파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받고 한국에 기개 하는 이것이 곧 빛나고 영광스러운 우리의 비전이며 소망이며 전심전력 한신할 이유"라고 역설했다.

계속해서 조 목사는 교단 "통합과 일부 세력의 이탈 과정에서 목도하게 된 여러 가지 폐단과 악습을 이제 일소하고 우리 교단이 신뢰와 우에, 아름다운 질서와 협력, 거룩의 전통을 더욱 굳건히 세울 수 있게 되었다"며 우리 교단에 속한 자부심과 긍지를 높여 주었다.

이어 특별기도로 '나라와 민생안정을 위해', '교단 발전과 개교회 부흥을 위해', '성령충만한 사역을 위해' 김창영 목사(사회국장), 서정복 목사(선교국장), 차갑선 목사(선교발전위원장)가 각각 주제별 기도를 인도했다.

교단 총회장 진등용 목사는 지난 한 회기동안 교단 발전을 위해 한신해준 교단 임원들에게 공로패를 수여 했다. 총회장 진등용 목사는 정체위원회장 조용목 목사로

부터 공로패를 받았으며 부총회장 조원의 목사와 총무 김병목 목사, 서기 이인규 목사, 재무 김종연 목사, 회계 김영준 목사는 총회장 진등용 목사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30년 근속자에 대한 근속패는 임춘동 목사, 강내봉 목사 등 2명이 받았으며 전북시도연합회장 신동신 사모에게는 감사패가 증정되었다.

이어 교단 회계 김영준 목사의 현금기도, 장로성기단의 현금송, 교단 서기 이인규 목사의 광고, 교단 정경 총회장 김상운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전회원은 기념촬영을 하고 곤비로 사무총회로 모여 각종 업무 및 사업보고 목사고시(교시위원회 김인규 목사) 학격자에 대한 인준에 이어 각 국, 각 위원회별 각종 사업보고 및 업무계획들을 처리했으며, 61차 총회 감사결과 및 결산보고 등이 통과되었다.

이어진 임원선거에서는 교단 한법 제 84조와 교단 선거관리위원회 시행규칙에 의거해 총회장에 조남영 목사, 부총회장에 김감신 목사, 총무에 최형택 목사, 서기에게 홍현철 목사, 재무에 조원체 목사, 회계에 안재홍

목사가 각각 선출되었다.

신임총회장 조남영 목사는 당선 인사말을 통해 "교단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혼신해 준 총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므로 바르고 정직하게 은혜 기운에 성장하는 목회현장을 만들기 위해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 이단 사이비를 배격하고 올바른 성경대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 니카파 회합과 협력, 도약의 총회로 만들 어갈 것"을 밝혔다.

신임총회장 조남영 목사 주제로 계속된 총회는 65 차 총회 예산안 심의 및 결의, 각지방회장 실행위원 자격인준 및 교단발전에 관한 건 등을 결의하고 제65차 정기총회를 은행 가운데 폐회했다.

제65차 교단 총회에서는 2008년 교단통합 이후 행정구역별 효율적인 지방회 통합 운영으로 효율을 극대화시켰다는 평가와 더불어 명실상부한 교단대통합 이후 안정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한국교회에 만연되어 있는 이단 사이비에 대한 불감증을 올바른 복음전파로 터뜨려나갈 것을 올바른 복음전파와 사수를 위해 온 힘을 기울여 창조질서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성차별금지법 추진 저지와 동성애자들의 권리의 죽체를 저지하며 짐요하게 한국 사회에 침투해 오는 이슬람의 세력을 효과적으로 막아내는데 뜻을 모을 것을 밝혔다.



공로패 - 총회장 진등용 목사



공로패 - 부총회장 조원익 목사



공로패 - 총무 김병목 목사



공로패 - 서기 이인규 목사



공로패 - 재무 김종연 목사



공로패 - 회계 김영준 목사

### 선교사 이종화, 김수여, 이명화, 마울림 목사 임직예배

#### 교단 선교위원회



교단 총회(총회장 조남영 목사) 선교위원회(위원장 심용재 목사) 소속 선교사 이종화, 김수여, 이명화, 마울림 선교사에 대한 목사임직예배가 지난 16일(월) 오후 4시 은혜와진리교회 아기페스전에서 거행되었다.

이날 임직예배는 교단 총무 최형택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총회장 김감신 목사의 대표기도, 사



회자의 성경봉독, 교단 총회장 조남영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목사는 마 25:15-23 말씀을 본문으로한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충성으로 이행해 줄 것을 강조하고 크게 쓰임 받는 일꾼들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안수위원장 총회장 조남영 목사의 집례로 이어진 임직식은 안수위원 부총회장 김감신 목사, 총무 최형택 목사, 선교위원장 심용재 목사, 필리핀지방회장 이용수 목사의 인도로 서약, 안수, 죄의, 약수례, 공포(임직증서제) 수여가 있었으며 선교위원회장 심용재 목사의 축도로 임직예배를 마쳤다.

### 2016학년도 총회목회대학원 상반기 계절학기 개설 안내

- 일 시 : 2016년 7월 11일(월) ~ 15일(금) 4박 5일
- 장 소 : 본 대학원 301호 강의실
- 등록마감 : 2016년 7월 4일(월) 17:00
- 문 의 : 02)2677-0692~3(본 대학원 행정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원장 목사 임종달

# 신천지 척결 지속적인 노력 다짐

“한기총과는 이단사이비 대책 함께 할 수 없다”

한교연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



시대법인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조일래 목사)과 비례신당수호위원회(위원장 흥인찬 목사는 지난 12일 오전 한교연 회의실에서 제5·2차 회의를 열고 최근 집단적인 시위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신천지를 척결하기 위해 회원교단들과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하기로 결의했다.

위원장 흥인찬 목사의 사회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신천지 신도들이 한국기독교연합회관과 CBS기독교방송 시옥 앞에서 ‘한기총 해체-CBS폐쇄’를 주장하며 집단시위와 서명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한기총측에서 비공식적으로 공동대응을 요청해 왔다는 보고를 받고 한기총과는 이단사이비 대책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입장은 확인했다.

비상위의 이날 결의는 한기총에 소속된 회원교단들 중에 한교연 회원교단에서 신조 및 교리, 신학사상을 공유할 수 있는 교단들이 있어서 이단사이비 대책에 관한 부분은 함께 할 수 없음을 명시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천지 대책에 관한 성명서 및 정부부처에 민원을 제출하기 위하여 4인 소위원회를 구성해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으며, 신천지 대처를 위해 전국 순회세미나 및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 2016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문화제 성료

정의화 국회의장에 공로패수여, 소년병출신참전용사에 국민보은 메달수여



2016 대한민국평화통일국민문화제 위원회(평예조직위원장 정의화 국회의장, 대표조직위원장 김영진 前농림부장관, 아주영 前해수부장관)가 주최하고 (사)우리민족교류협회(이사장 송기하)가 주관해 오는 6월 보훈의 달을 앞두고 참전용사 및 특별히 종·고등학교 학생 신분의 어린 나이에 구국의 일념으로 참전했던 소년병 참전용사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자 5월 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

서 2016 대한민국평화통일국민문화제 국회의장 공로장 수여식 및 참전용사 국민보은메달 현정식을 가졌다.

이날 대표조직위원장 김영진 전농림부장관은 대회사에서 “본회의 평예위원장이신 정의화 국회의장의 한신적노고와 그동안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해 기울여주신 성심과 기여를 오래도록 기리고자 우리의 감사와 존경의 뜻을 담은 공로패를 수여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금후 DMZ와 애기봉에 대형 평화의 종을 건립하기로 계획”임을 소상히 밝혔다.

을 건립하기로 JSA 및 당국과 이미 합의를 했으며 광주에도 무등산에 “민주평화의 종”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온힘을 다해갈 것이라고 밝혀 큰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조직위 평예위원장인 정의화 국회의장은 기념사에서 “부족한 저에게 온 민족의 오랜 숙원인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고귀한 현정에 여러분과 함께 동참케 되어 매우 기쁘고 감격스럽다”고 말하고 특히 그동안 조직을 굳건히 이끌어주신 조직위원장과 이사장 이하 수고하신 여러분께 큰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이 고귀한 민족적 당면 과제가 앞당겨 성취되도록 저 또한 더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함께 나아가겠다.”고 다짐하여 큰 박수와 깊은 공감을 얻기도 했다.

이어서 우리민족교류협회의 송기하 이사장은 경과 및 주요 사업보고를 통해 “민원점에 이미 평화의 종 기공식을 마친바 있으며 김포시와 함께 애기봉에 대형 평화의 종을 건립하기로 합의 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참전 16개국에 터기부터 시작해서 매년 평화의 종을 건립해갈 계획”임을 소상히 밝혔다.

그리하여 “지금 한국교회는 혼돈의 상황으로 미처 시대의 새벽에서 있는 느낌이다”면서 “이런 때에 한국교회, 영성의 길”이라는

## 언더우드 서거 10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맥코믹 신학대학 제프리 자핑가 박사를 주강사로



주강사 제프리 자핑가 박사

가, 제자인가’라는 제목의 강연이다.

이 강연에서는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의 관계를 정립하게 된다.

둘째 날인 29일(주일)에는 오후 4시 30분

부터 제프리 자핑가 박사의 제3강 ‘언더우드 선교사의 생애’를 주제로 진행된다.

5월 28일(토)에는 새문안교회 언더우드교

육관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이수영 담임목

사와 교회의 문제를 ‘제자도’의 관점에서 진

단해보는 제9회 국제심포지엄을 오는 5월 28일(토)과 29일(주일) 이틀 동안 동교회 언더우드교육관(광운문)에서 열린다.

한국선교 및 근대화의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한 초기 선교사들의 혁신된 일상을 오늘

에 비추어 성장이 면밀한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나이갈 방향을 모색해보기 위해 개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시카고 맥코믹 신학대학 교육이자 저명한 저술가로 기이드 포스트’ 대표 편집위원인 제프리 자핑가(Jeffrey Jasper) 박사가 주 강사로 나서 세 차례 강연한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제자도’의 관점에서 진

단해보는 제9회 국제심포지엄을 오는 5월 28

일(토)과 29일(주일) 이틀 동안 동교회 언더

우드교육관(광운문)에서 열린다.

한국선교 및 근대화의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한 초기 선교사들의 혁신된 일상을 오늘에 비추어 성장이 면밀한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나이갈 방향을 모색해보기 위해 개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시카고 맥코믹 신학대학 교육이자 저명한 저술가로 기이드 포스트’ 대표 편집위원인 제프리 자핑가(Jeffrey Jasper) 박사가 주 강사로 나서 세 차례 강연한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제자도’의 관점에서 진

단해보는 제9회 국제심포지엄을 오는 5월 28

일(토)과 29일(주일) 이틀 동안 동교회 언더

우드교육관(광운문)에서 열린다.

한국우물가선교협회 김용식 이사장은 “한국우물가선교협회 김용식 이사장”(KVS한국우물가선교협회) 취임예배 및 뮤지컬 ‘갈릴리로 가요’ 공연성공을 위한 감사예배가 지난 5월 9일 오후2시 서울 중구 남산 서울문화의집에서 열려 재소자들의

참디운 삶을 위한 도우미 역할 등 우리 사회

소외된 자들을 위한 선교에 적극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날 예배는 이한 목사 사회로 이진우 목

사(추수감사교회, 텔런트)의 기도, 소프리노

양재희의 특송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용식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부족하고

미약한 저를 이 자리에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하늘을 나

는 새처럼 큰 날개 짓으로 대표회장과 회원

들과 함께 선교회를 이끌어 가겠다”고 다짐

했다.

취임예배는 계속해서 한인수 예술위원장,

이민우 예술총감독, 박도현 예술지분위원장에

대한 임명과 증정, 이진우·이응경·허수현

에 대한 감사 임명과 이어 뮤지컬 ‘갈릴리

로 가요’의 감독인 이민우과 출연자인 한인

수, 박도현, 이진우, 이응경, 허수현의 감사인

사가 있었다.

참종철 목사의 축도 후 열린 2부 특별순

서는 기고문 김성규의 진행으로 공연성공 기

념과 증정 및 축하공연 시간을 가졌다.



한국우물가선교협회 김용식 이사장은 “한국우물가선교협회 김용식 이사장”(KVS한국우물가선교협회) 취임예배 및 뮤지컬 ‘갈릴리로 가요’ 공연성공을 위한 감사예배가 지난 5월 9일 오후2시 서울 중구 남산 서울문화의집에서 열려 재소자들의

참디운 삶을 위한 도우미 역할 등 우리 사회

소외된 자들을 위한 선교에 적극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날 예배는 이한 목사 사회로 이진우 목

사(추수감사교회, 텔런트)의 기도, 소프리노

양재희의 특송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용식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부족하고

미약한 저를 이 자리에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하늘을 나

는 새처럼 큰 날개 짓으로 대표회장과 회원

들과 함께 선교회를 이끌어 가겠다”고 다짐

했다.

취임예배는 계속해서 한인수 예술위원장,

이민우 예술총감독, 박도현 예술지분위원장에

대한 임명과 증정, 이진우·이응경·허수현

에 대한 감사 임명과 이어 뮤지컬 ‘갈릴리

로 가요’의 감독인 이민우과 출연자인 한인

수, 박도현, 이진우, 이응경, 허수현의 감사인

사가 있었다.

참종철 목사의 축도 후 열린 2부 특별순

서는 기고문 김성규의 진행으로 공연성공 기

념과 증정 및 축하공연 시간을 가졌다.

한국우물가선교협회 김용식 이사장은 “한국우물가선교협회 김용식 이사장”(KVS한국우물가선교협회) 취임예배 및 뮤지컬 ‘갈릴리로 가요’ 공연성공을 위한 감사예배가 지난 5월 9일 오후2시 서울 중구 남산 서울문화의집에서 열려 재소자들의

참디운 삶을 위한 도우미 역할 등 우리 사회

소외된 자들을 위한 선교에 적극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날 예배는 이한 목사 사회로 이진우 목

사(추수감사교회, 텔런트)의 기도, 소프리노

양재희의 특송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용식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부족하고

미약한 저를 이 자리에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하늘을 나

는 새처럼 큰 날개 짓으로 대표회장과 회원

들과 함께 선교회를 이끌어 가겠다”고 다짐

했다.

취임예배는 계속해서 한인수 예술위원장,

이민우 예술총감독, 박도현 예술지분위원장에

대한 임명과 증정, 이진우·이응경·허수현

에 대한 감사 임명과 이어 뮤지컬 ‘갈릴리

로 가요’의 감독인 이민우과 출연자인 한인

수, 박도현, 이진우, 이응경, 허수현의 감사인

사가 있었다.

참종철 목사의 축도 후 열린 2부 특별순

서는 기고문 김성규의 진행으로 공연성공 기

념과 증정 및 축하공연 시간을 가졌다.

한국우물가선교협회 김용식 이사장은 “한국우물가선교협회 김용식 이사장”(KVS한국우물가선교협회) 취임예배 및 뮤지컬 ‘갈릴리로 가요’ 공연성공을 위한 감사예배가 지난 5월 9일 오후2시 서울 중구 남산 서울문화의집에서 열려 재소자들의

참디운 삶을 위한 도우미 역할 등 우리 사회

소외된 자들을 위한 선교에 적극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날 예배는 이한 목사 사회로 이진우 목

사(추수감사교회, 텔런트)의 기도, 소프리노

양재희의 특송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용식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부족하고

미약한 저를 이 자리에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하늘을 나

는 새처럼 큰 날개 짓으로 대표회장과 회원

들과 함께 선교회를 이끌어 가겠다”고 다짐

## 싱가폴AG 총회장 은혜와진리교회서 설교

도미닉 에오 목사 싱가폴 하나님의성회 총회장, 세계 하나님의성회 실행위원

싱가폴 하나님의성회 총회장 도미닉 에오 목사(시전 오른쪽)는 지난 5월 8일(주일) 은혜와진리교회(담임 조용목 목사) 주일 11시 예배에서 말씀을 즐거워하고 성도들에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 역설했다.

도미닉 에오 목사는 세계 하나님의성회 실행위원이며 이시아 대평양 하나님의성회(APAGF) 의장으로 국제적인 선교사역을 지원하는 리더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도미닉 에오 목사는 8천여 성도가 출석하는 싱가폴 대형 교회 중 하나님 트리니티 크리스천 센터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 순복음반송교회 입당예배 및 임직예배

### 부산지방회

부산지방회(회장 홍현칠 목사) 순복음반송교회(담임 한순남 목사) 입당예배 및 임직예배가 지난 5월 9일(월) 오전 11시 부산시 해운대구 신반송로 동교회 새성전에서 드려져 이 시대에 구원의 복주 역할을 감당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임직예배는 지방회 재무 정영진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회장 조병희 목사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여목부 회원일동의 찬양, 교단 증경총회장 유봉수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유 목사는 막 2:22 말씀을 본문으로 제2의 출발! 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새성전 입당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충성을 다하는 교회



와 직분자들이 될 것을 당부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이어 서기 박영옥 목사의 현금기도, 박종근 목사(은혜순복음교회)의 세소 폰연주가 있었으며 지방회장 홍현칠 목사집례로 명예장로 임직식이 거행되었다. 홍 목사는 서역을 받은 후 안수위원들과 함께 안

수기도, 착의, 약수례, 공포, 임직폐 증정 순으로 임직식을 마치고 축하순서로 최수근 목사와 이건재 목사의 축사, 직전지방회장 홍현칠 목사와 도은남 목사의 권면, 담임 한순남 목사의 인사 및 광고, 꽃다발증정, 최수근 목사의 축도순으로 예식을 모두 마쳤다.

## 십자가승리교회 창립, 구속의 은혜 전파 다짐

### 경기남지방회

경기남지방회(회장 김남수 목사)는 지난 5월 10일(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40번길 29-4에 위치한 십자가승리교회(담임 양선희 전도사) 창립예배를 드리고 땅끝 까지의 복음전파를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창립예배는 박홍열 목사(오성사랑교회 담임)의 사회로 김효신 목사(천양교회 담임)의 대표기도, 이민숙 집사의 특송, 지방회장 김남수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골 2:12-15 말씀을 본문으로 ‘십자가로 승리하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사역의 진정한 승리는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가는데 있다”고 전하고 십자가의 신앙을 강조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이어 증경회장 정석현 목사(평강교회 담임)와 최병일 목사(신행제일교회 담임)의 축사가 있었으며 김기인 목사(벧엘교회 담임)와 신동숙 목사(임마엘교회 담임)



의 권면으로 십자가승리교회의 창립을 축 하했다.

정미자 목사(셀교회 담임)의 현금기도, 십자가승리교회 담임 양선희 전도사는 인사말에서 교회 주변이 유독 우상과 미신이 심한 지역이라며 팔달구 지역에서 복음으로 하나님 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 할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기인 목사의 축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친 후 십자가승리교회에서 준비한 오찬을 끝으로 하여 교제와 은혜기운데 창립예배를 모두 마쳤다.

## 총회신학교 후원에 다같이 참여합시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후원회  
계좌번호 농협 302-0928-2103-51 / 예금주 임종달

### 포토뉴스



#### 64차 총회 감사위원회 수입 지출, 영수처리, 통장정리 등 확인

교단 64차 총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갑신 목사)는 지난 9일(월) 오전 11시 총회본부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지난 한 회기동안 각종 회계관련 장부 및 금전출납부 등 서류를 검토하고 수입과 지출, 영수증처리 여부, 통장잔액이 잘되어 있는지 확인했다. 이날 모임은 강남지방회 김종열 목사의 기도로 시작되어 위원장 김갑신 목사 주재로 진행되었다. 김 목사는 총회에서 제출된 각종 서류들을 위원들이 서로 나누어 확인하도록 하고 수입과 지출 내역 등이 올바로되어 있는지 세밀하게 검토하였다. 각위원회들의 서류 확인과 회계 출纳관계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고 각종 전표와 통장입출도 잘 정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감사서류를 최종 승인했다. 이율리 상회비 남부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아 총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높여가도록 계도해 갈 것을 강조했다.

## 총회장 진등용 목사 모친 김옥희 권사 소천

고 김옥희 권사 자녀들을 목회자로 신양인으로 길러내

교단 총회장 진등용 목사 모친 김옥희 권사가 지난 5월 3일(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향년 88세인 고 김옥희 권사는 평생 굳건한 신양인으로 자녀들을 목회자로 신양인으로 길러내었을 뿐만 아니라 역사의 굴곡을 몸으로 겪으면서도 신양을 지켜낸 믿음의 산 종인이었다.

6일(금) 오전 9시 횡성 대성병원 장례식장에서 드려진 고 김옥희 권사의 발인예배는 교단 총무 김병목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교단서기 이인규 목사의 대표기도, 교단 증경총회장 김인규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마 7:21-27 말씀을 본문으로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어려운 시기를 지내 오시면서도 한결같은 신양으로 자녀들 모두를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내신 권사님의 신양을 본받아 자손 만대에 이르는 복을 받아 누리는 모두가 될 것”을 당부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이어 총회장 진등용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교단 증경총회장 이장재 목사의 축도로 발인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 5월 월례회 힘써 여호와를 알자

### 충북지방회

충북지방회(회장 최동순 목사)는 지난 5월 9일(월) 오전 11시 기쁨충만교회(담임 신현찬 목사)에서 5월 월례회를 갖고 총회와 지방회, 개교회의 부흥과 별전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간절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유병일 목사(내수평양교회)의 사회로 시작하여 권영무 목사(우리순복음교회)의 대표기도, 신현찬 목사(기쁨충만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신 목사는 삼 2:6-1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여호와를 알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여호수가 죽은 다음 디디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지만 목회자가 성령의 역사를 온전히 인정하고 나이갈 때 사역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이어 김자수 전도사(엘림교회)의 현금기도와, 지난 일년 동안 지방회장으로 수고하신 김정수 목사(전지회장)에게 감사패 증정과 김정수 목사(부강순복음교회)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는 지방회장 최동순 목사의 진행으로 회계 민병훈 목사의 5



월 회계 보고와 재무 신설 목사의 재무보고, 김용 목사의 총무보고와 기타 인건을 처리한 다음 교단의 별전과 충북지방회 신임 목사의 진행으로 회계 민병훈 목사의 5

례회를 마쳤다. 회의를 마친 참석자들은 장소를 옮겨 기쁨충만교회에서 준비한 오찬을 나누며 사랑의 교제의 시간을 가짐으로 모든 일정을 은혜 가운데 마쳤다.

## 외국인선교회, 외국인 성도를 위한 의료봉사

은혜와진리교회(담임 조용목 목사) 수원성전 외국인선교회는 지난 4월 24일 세계선교센터 2층 진료실에서 이주대병원 의료진과 협력하여 외국인 성도를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족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주일예배를 드린 후 진료실을 찾아 의료진들로부터 정성

어린 검진과 치료를 받았다. 이날은 특히 산업체 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들이 많이 선교병원을 찾이와 재활의학과 물리치료실이 시종 만원을 이루었다.



#### 총회 예산위원회(65차 회기 항목별 예산 배정 만전)

총회 예산위원회(위원장 윤병하 목사)는 지난 5월 9일(월) 오후 2시 총회본부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각종 65차 회기 항목별 예산 배정에 누락이나 비정상적인 부분은 없는지 상세히 검토했다.

이날 모임은 위원장 윤병하 목사의 개회기도 후 곧바로 회의를 갖고 1년 예산의 집중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개척교회 후원금을 비롯 각종 지원금과 운영자금의 안정적 으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 생명의 말씀



엄기설 목사  
· 대전지방회장  
· 은혜와찬양교회 담임

##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요 15:1-8)

티력했고 원전히 죽었고 우리의 육은 여전히 육이고 변할 수 없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이 잘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자기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자기성질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나는 육이 아닌 비누가 될 수 있다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무서운 죄는 살인, 강간, 도둑질 등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주를 바라보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기초인데 이 기초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행위를 만들어내고 스스로 채찍질하며 괴롭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안 지울까요?” 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다시는 주를 놓지 않을까요.” 하는 것이 올 정도 할 수 없음이니”(요 15:5)

기자의 역할은 불어 있는 것입니다. 연결입니다. 우리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과 연결되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이며 열매 맺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라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인 줄로 알고 착각하고 하나님에 되려고 합니다. 내가 길, 진리, 생명이 되려고 합니다. 이것이 문제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면 예수님이 서 오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괜찮은 모습이라면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이것을 지켜 그러면 사랑해 줄께 그러면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을 걸으신다면 그것을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한 가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기 를 원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고 붙어 있으면 원하신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고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니”(요 15:5)

기자의 역할은 불어 있는 것입니다. 연결입니다. 우리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과 연결되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이며 열매 맺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라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인 줄로 알고 착각하고 하나님에 되려고 합니다. 내가 길, 진리, 생명이 되려고 합니다. 이것이 문제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다. 베드로가 파도와 바람이 아닌 오리나 거북이나 물에 떠내려가는 데지나 그 어떤 것을 보았다 해도 그는 빼쳤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가 다른 어떤 것을 보았는데 있지 않고 그가 예수님을 보지 않았는데 있습니다.

물 위를 걷는 삶은 열매를 맺는 삶을 말합니다. 인간이 열매를 맺는 것은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 기적은 예수님을 따라 볼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오직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항상 주를 부르세요 꿈에서도 부르세요. 저는 암투병 생활 후 밤낮으로 주를 부르며 잠이 들었어요 주님, 주님 나를 주님의 사랑으로 정복해 주세요.

그렇게 주를 불들지 않으면 죄를 지으니까요. 사는 것이 재미가 없고 좋은 열매를 못 맺으니까요 그저 밤새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하고 주를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 죄짓고 넘어져도 낚시하지 마세요. 내가 원래 이렇지 뭐 주님을 불들지 않으면 당연한 거지. 이게 원래 내 모습이지 그렇게 풀을 텔고 일어나서 걱정하지 말고 다시 주님을 향해 가십시오. 주를 불삼으심 시오. 이것이 복음의 기초입니다.

제게 어느 정도 열매가 있다면 어떨까 든지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루 종일 애쓰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그 한 가지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성품에 문제가 있고 대인관계가 자유롭지 않은 이들 오직 예수를 불들므로 많은 풍성한 열매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놓치지 마세요. 돈을 잃어도 목숨을 잃어도 예수를 놓치지 마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입니다.

## 동정

## 한복운 대마도 선교대회 성료



한국복음화운동  
본부(대표총재 피종  
진 목사, 총회 이종인  
목사)가 4월 25~26일  
양일간 ‘대마도 선교  
대회’를 진행하고 일  
본 쓰시마 이즈하리마치 텐도시계에 위  
치한 대마온해교회(박영철 선교사)에  
서 집회를 열었다.

## 예성 총회장에 이동석 목사



예수교대한성결  
교회 제95회 정기총  
회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된 가  
운데, 직전 부총회장  
이동석 목사(서울능  
력교회)가 신임 총회장으로 추대됐다.  
경기도 안양 성결대학교에서 열린 이번  
총회에서 예성은 이동석 목사를 비롯한  
신임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교단 내  
안건을 처리했다.

## 미래군선교네트워크, 워크숍



군선교 전문사역  
기관인 미래군선교네  
트워크(이사장 김경  
원 목사)는 군목, 군  
선교사 및 군인가족  
들을 위한 ‘장병양육  
워크숍 및 군인가족상담세미나’를 지  
난 12일 6군단 진군교회(중령 이석영  
목사)에서 개최했다. 6군단 예하 군목  
10명, 군선교사 25명, 군인가족 80여명  
이 참여한 이날 1부 예배는 김봉수 목사  
가 설교 말씀을 전했다.

## 서울신대 총장에 노세영 교수 선출



서울신학대학  
제18대 총장으로 노  
세영 교수가 선출됐  
다. 서울신학대학  
이사회(이사장 박용  
규 목사)는 지난 12  
일 이사회를 열고 노세영 교수를 차기  
총장에 선출했다. 노세영 교수는 오는  
22일~24일 열리는 교단 총회에서 인  
준을 받은 후 교육부 선임 절차를 거  
쳐 올해 9월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노  
교수는 학교발전을 위해 헌신을 다짐  
했다.

## 고전제하였다.

‘성 중독의 신학적 이해’는 불안해소의 비본질적 욕망을 이해하고, 중독의 현상은 영성의 상실이며, 성 중독은 죽음의 회심임을 알아, 한국교회가 전문가를 양성하고, 성 중독 연구를 다양하게 하고, 한국교회 전체 치원에서, 윤리자침 및 신학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 ‘개임중독’에 대하여 김광태 목사는 먼저, 세대적 변화를 이해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과거에는 공유세대’였고 현재는 ‘이미지 세대’이며, 미래에는 ‘콘텐츠 시대’라고 하였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디지털의 흥수 속에

갇혀 지내게 되며, 이것이 삶의 전 영역으로 확대되어 간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중독’의 의미가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을 과다 사용하여 금단과 내성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장애가 발생되고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행동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결국 인터넷 중독도 ‘아토피’처럼,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이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번 맛보면 레어나기 어렵게 빠져드는 것이라고 하였다.

앞으로 한국 교회는 디지털 중독의 문제로 심각한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시대가 더해 질 것이다. 디지털 중독의 문제는 단순히 사회적 현상이 아니라, 교회안의 심각한 영적인 문제이며, 치료하고 바로 잡아야 할 시안이다.

앞으로도 한국교회연합회는 사회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교회의 역할이 절실했던 분야에 대하여 고민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장(場)을 마련하려고 한다.

## 한국교회언론회

## 모든 디지털 중독은 영적 전쟁의 연장선이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민석 목사)는 4월 21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데 디지털 중독 포럼”을 개최하였다.

우리나라는 현재 5대 중독(알콜, 인터넷, 도박, 미약, 성 중독)에 빠진 사람만도 881만명에 이를 정도로, 중독의 문제가 심각하다. 여기에 이를 정도로, 중독의 문제를 겪는다. 여기에다 게임중독, 관계 중독, 디지털 중독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이다.

한국교회언론회가 이번 4대 디지털 중독 포럼을 개최한 것은, 이런 사회적 중독 현상이 애굽아금 교회 속에도 파고 들어와 교회안에 만연되어 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과 대안을 모색하여,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중독 치료 전문가를 소개해 이사장을 찾자는 취지로 시작하였다.

최성화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교회가 디지털 중독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우고, 중독 치유와 더불어 올바른 디지털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있다”고 하였다.

대표 유민석 목사는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중독 현상으로 국가 미래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터기하기 위하여 적절하게 대처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고 하였다.

포럼은 한국교회언론회 공동대표이며, 대변인인 이억주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 찬양부흥회

찬양을 드리며 주님을 느끼고,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깨닫는  
은혜와 능력의 찬양부흥회

## 순복음신나는교회 담임목사 이후관

서울 양천구 화곡로 4길 12(구 신월5동 52-3)  
전화 02-2606-2191 (서울남서지방회 소속)



15년여에 걸쳐 약 500여 회의 찬양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주일 저녁시간(서울 경기 일원)을 원하시는 교회는 저녁 7시로 맞춥니다.

서울, 경기 이외의 지역은 별도 상의를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10-2322-0049**  
무료로 진행합니다.

## 한 권의 책으로 장병들에게 장래의 꿈을!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 전개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TV,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정서가 메말라가고 게임중독 등으로 이기적 삶의 형태로 변해가는 신세대 장병들에게 이러한 기기들을 좀 멀리하고 책과 함께 함으로 정서 함양과 협동심, 사회성, 희생정신과 봉사와 희생정신을 일깨우는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되어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내용의 책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장병들에게 평안과 위로, 안식과 믿음을 심어 줄 수 있는 종교서적-설교집, 신앙잡지, 설교 테이프, 찬양 테이프, QT 책 등-군생활 속에

서 장래의 꿈을 심어 줄 수 있는 책과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관련서적,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의 요리서적, 경제 및 건강관련서적, 소설로 된 역사책 등이 절실했던 상황입니다.

새 책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무심코 지나쳤던 책들이 있으시면 장병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쟁겨 보내주시면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보내주신 한 권의 책이 이기적이었던 신세대 장병들을 동료를 내 몸처럼 아끼고 배려할 줄 아는 선한 이웃으로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보내실 곳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1905  
e편한세상 103/801

목회자의  
창

서현철 목사 // 장로교신학 학장, 장신교회 담임



## 십자가로 기독교를 비하하지 말라

우리는 교회의 꽃대기에 우뚝 서있는 십자가를 흔히 본다. 기독교 신자들의 무덤에 십자가를 세우고, 교회에서는 십자를 보며 기도하고, 신도들은 기도하기 전 손으로 가슴 앞에 십자를 긁는다. 게다가 교회의 평면 설계까지도 십자가 형태로 한다. 이처럼 십자는 기독교의 상징이다. 신자들의 숭배물이다. 그러나 기독교가 처음 형성되었을 때 신도들은 십자를 사용하지 않았고, 숭배는커녕 오히려 종교의 대상으로 여겼다. 왜냐하면 십자는 예수를 매달아 죽인 도구이자 예수를 믿지 않는 이교도들의 징표였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초기 기독교 신자들에게 십자는 오히려 베개의 대상이었다.

십자가가 기독교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고고학의 발견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찍이 기독교가 출현하기 몇 년 전에 십자를 숭배하던 사람들이 있었다. 고고학자들은 티그리스강 근처 앗시리아 왕국의 유적에서 캐디란 돌기둥을 발견했는데, 그 돌기둥에는 왕국의 전신상이 새겨져 있었다. 이 전신상은 지금으로부터 2천 8백여 년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국왕의 흉부에는 캐디란 십자가가 있었다. 그리스, 이란, 아리크 등지에서 출토된 약 4,5천년 전

의 그릇에도 십자가가 있었다. 이는 십자를 숭배하는 것이 면 옛날부터 전해온 것이다. 그 시초는 기독교가 이님을 밟혀 준다. 고대 사람들은 십자를 숭배했던 이유는 바로 불을 숭배했던 데서 기인한다. 나무 막대기 두 개를 교차해 만든 십자는 불을 점화시키는 도구의 성질이다. 또한 향구로서 십자가가 쓰인 것은 예수가 쳐움이 아니었다. 일찍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천년 전, 이와 같은 참혹한 형벌은 페르시아나 로마 등지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기원 전 519년 페르시아 국왕이 3천여 명의 적들을 십자로 죽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기독교가 언제부터 십자를 종교적 상징으로 받아들인 것일까? 아마도 기독교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점차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기독교의 교리는 신자들 사이의 믿음과 인내, 복종을 참아낸 뒤에야 천국으로 가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는 뼈를 깨는 고통을 견디면서 죽음에 이르렀고, 그 후 다시 부활하였기에 이러한 예수의 형상을 신자들에게 알리는 것이 관건이었다. 이 때 기독교에서 십자를 사용하였던 것이다. (출처: 세계 역사, 숨겨진 비밀을 밝히다. 장장년, 정연진 편저, 김

숙향 옮김, 눈과미술, 2007, PP179-181)  
십자가로 기독교를 비하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기도하기 전 손으로 가슴 앞에 십자를 긁는다.”는 것도 기톨릭 외에 개신교인들은 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독교 신자 전체가 그려하나는 논리로 전개한다. 특히 십자가가 “기독교 상징이자 신자들의 숭배물”이라며 “십자가를 숭배하게 되었다”고 한다. 곧 “십자가를 기독교인들의 우상 숭배”로 단정한다. 그러나 그러한 인식은 일관된 정보를 근거로 그리스도인을 비하하며 신앙적 원리를 의도적으로 부정하려는 편견일뿐이다. 기독교는 선택받은 자의 대속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시어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음을 믿음으로 구원 받음을 물론 ‘그리스도인’ 디운 삶의 자세 등의 핵심을 담고 있다. 따라서 “신자들이 십자를 숭배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이미 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의 대속의 은혜를 모독하는 행위이며, 그리스도인을 비하함이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 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리” (고전 1: 18)

## CTS기독교TV 대담 ‘한국교회를 論하다’

### 기독당선자의 눈으로 본 제 20대 국회

CTS기독교TV(회장 김경철, 이하 CTS)는 오는 5 월 30일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생방송 ‘CTS기독교TV 대담 한국교회를 論하다’(이하, 한국교회를 論하다) 기독당선자의 눈으로 본 제 20대 국회’ 편을 13일(금) 오전 10시에 방영했다.

김재일 장로(한국외국어대학교 외래 교수, 새이엔 교회)의 사회로 기독 국회의원 당선자 이해훈 의원(새누리당 3선, 서울 서초갑), 조배숙 의원(국민의당 4선, 전북 익산시을), 흥의학 의원(무소속 재선, 대구 시북을)이 출연하여 20대 국회에 대한 평가 및 20 대 국회에 대한 기대와 전망, 스기독 정치인, 동성애와 이슬람에 대한 대처, 스기독정당의 필요성 등에 대한 특별히 크리스천 정치인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특별히 크리스천 국회의원으로서 향후 20대 국회에서 풀어나갈 기독교적 현안들에 대한 보다 친중한 접근을 시도한 패널들은 기독교의 사활과도 관계가 깊은 동성애 차별금지법과 이슬람 침투 등의 시안에 대한 확고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해훈 의원은 “동성애는 성경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그릇됨이며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밝혔으며, 조 배숙 의원은 “지역구로 있는 익산에 위치한 국가식 품클러스터 내 헐랄식품 허용에 대한 교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안드”며 “이는 성경적으로 물

론 허용되어선 안 될 일이지만, 이슬람 인들의 출입으로 인한 IS자리 유입 및 국가테러 위협 문제와 경제적 측면에서의 낮은 경쟁력 등에 따라 국가 전체적인 시각으로도 타당한 방법이 될 수 없으므로 국회 등원 시 앞장서서 반대할 계획”이라는 소신을 전했다.

또한, 기독정당의 필요성에 대해 흥의학 의원은 “모든 국민이 회합하고 통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기독교인이 원하는 일을 해나갈 기독정당의 필요성에는 찬성하지만, 아직 국민들의 정서나 진정한 기독교 정신 및 기학을 향한 흐름이 무엇일지 고민하는 뿐만 아니라 제대로 내려지지 않은 시점에서의 출범은 시기상조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

조배숙 의원과 이해훈 의원은 기독정당 출범 원인에 대해 “차별금지법과 이슬람의 혁장 등 그간 교계의 입장과 행행에 맞서는 조폐들의 입법 움직임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담합한 마음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기독정치인들에 대한 실망으로부터 온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20대 국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한 충분한 역할 감당에 따른 큰 의무를 통감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별히 이해훈 의원은 “정당출범은 차선책이 될 수밖에 없고, 믿음의 사립을 영적으로 분별하여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의 최선책이라 고 생각한다”며 연합되지 못한 체 나뉜 두 정당의 모



습에 안타까운 미음을 드러냈다.

20대 국회에서 주력할 인간에 대해 조배숙 의원은 “종교적 다양성이 존재하는 지역임에 따라 기독교 사적지를 순례길로 만드는 등 현안 사업에 충실할 것”을 강조했으며, 이해훈 의원은 “경제구조의 극심한 양극화 완화 및 악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흥의학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고 청년 및 노인의 사회참여 확장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패널들은 “20대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제대로 일하는 정치, 신뢰를 회복하는 생산적인 정치는 물론, 기독 국회의원으로써 본래의 목적을 발견하는 기관하고 약한 자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안 제시”에 대한 약속을 잊지 않았다. 또한, “한국교회가 연합하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한 힘을 모으는 전략적 자세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국회로 피송된 믿음의 정치인들에 대한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부탁했다.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 2016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임·회원 명단

| 대 표 고 문 | 조용목 목사(은혜와진리교회)

| 증경총회장 | 김상용 목사(성주중앙순복음교회)

유봉수 목사(은혜와사랑의교회)

진동용 목사(새소망교회)

배진기 목사(안디옥교회)

임종달 목사(전주은혜와진리교회)

최광덕 목사(일산은혜교회)

이창재 목사(진주부제일교회)

김인규 목사(은혜와평강교회)

김용덕 목사(영동제일교회)

| 총 회 장 | 조남영 목사(기평순복음교회)

| 지 도 고 문 | 김인찬 목사(청신교회)

정부용 목사(대림밸리교회)

| 증 경 회 장 | 엄기설 목사(은혜와천양교회)

김희태 목사(간현교회)

| 회 장 | 신재영 목사(새김천교회)

| 상 임 위 원 | 신동숙 목사(순복음임이뉴엘교회)

오승우 목사(천안서북교회)

황용언 목사(은혜와평강교회)

정석현 목사(평강교회)

김임복 목사(순복음무등교회)

백영자 목사(녹동순복음교회)

| 부 회 장 | 김기진 목사(제천순복음양문교회)

서정복 목사(남원중앙교회)

| 상 임 총 무 | 김건수 목사(순복음예수나리교회)

윤혜영 목사(순복음주찬미교회)

| 사 무 국 장 | 최정식 목사(순복음복된교회)

김병호 목사(순복음행복한교회)

| 실 무 총 무 | 신복희 목사(순복음회평교회)

박홍렬 목사(오성사랑교회)

| 서 기 무 | 윤성수 목사(진주은평교회)

조은혜 목사(순복음빛된교회)

| 계 사 | 양운례 목사(창조교회)

김종연 목사(은혜교회)

최난성 목사(동강순복음교회)

| 회 원 | 권택선 목사(순복음하은교회)

김연옥 목사(행복한선교교회)

이화숙 목사(전주순복음우리교회)

임영철 목사(순복음승리교회)

홍현자 목사(사랑과평화교회)

조병희 목사(기장순복음교회)

| 준 회 원 | 정환무 전도사(순복음빛된교회)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에서는 도시지역 미자립교회(성도수 20명 이하) 및 농·어촌, 산간벽지, 낙도 교회들을 대상으로 자비방부흥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이사회는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부흥회를 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막설이고 계시는 교회는 부흥사회로 연락을 주시면 적극 힘을 되어 드리겠습니다.



신임 총회장 조남영 목사에게 축하화환 전달



직전 총회장 진동용 목사에게 축하화환 전달



신구 임원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벧전 5:8)

## ‘성경적인 구원의 도리 전파에 앞장’ 다짐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65차 정기총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65차 정기총회가 지난 16일(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벧전 5:8)라는 주제 아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은혜와진리교회에서 열려 한국교회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사명을 확인하는 한편 한

국교회에 깊숙이 침투해 오는 종교다원주의 사상과 혼합주의를 비롯 이단 사이비를 배격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기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본지는 65차 정기총회 광경을 화보로 엮는다 …

〈편집자 주〉



임원배석



기록서기



목수인수 대상자인준



각 지방회장 실행 위원인준



은혜와진리교회 장로성가단의 친양



제65차 정기총회 예배광경

### ■ 순서를 맡은 이들 – 총회 진행순서



### ■ 근속패 및 감사패



정책 위원장 조용목 목사를 비롯 총회장 조남영 목사와 신임원진들과 함께 인사 나누는 일  
본지별 회장 염순복 목사(사진 왼쪽에 서 첫번째 뒷모습 보이는분, 원내 사진)와 일본지방회 증경회장 김양희 목사(왼쪽에서 두번 째)

### ■ 발언대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65차 정기총회 성료

본 교단 제65차 총회에서 당선된 새 임원진

총회장



조남영 목사  
기평순복음교회

부총회장



김갑신 목사  
새여수은혜와진리교회

총무



최형택 목사  
광양은혜와진리교회

서기



홍현철 목사  
온혜충만교회

재무



조원채 목사  
통합순복음교회

회계



안재홍 목사  
순복음만남의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2016 쥬빌리코리아 청년대회 개최

6월 6일, 청년통일컨퍼런스 및 쥬빌리코리아 기도큰모임



2016 청년통일컨퍼런스와 쥬빌리코리아 기도큰모임 청년대회가 이번 달과 다음 달 잇따라 열린다.

한국 교회의 통일준비를 위해 기도해온 쥬빌리통일 구국기도회와 기도인들을 통일 시대의 리더로 키우고 있는 숭실대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가 기독청년들의 통일사명 고취와 실제적인 통일준비를 위한 목적으로 공동 주최하는 2016 청년통일컨퍼런스는 '청년통일 공간'을 주제로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숭실대 김덕윤예배실에서 열린다.

하분영 평화한국 대표가 '통일한국의 비전과 기독청년의 사명'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전병길 한국리더십학교 교팀장의 '여겨라 통일 삼성력', (청년, 통일하자)의 공동 저지인 김경현 형제의 '기대하라, 통일한국', 탈북청년 박요셉 요벨 대표의 '나눔으로 하나님되는 통일한국'에 대해 발표한다. 이밖에 북한선교, 북한교회 세우기를 주제로 한 탈북민 사역자들의 강의도 이어진다.

강연 외에도 북한음식 체험전, 참석자들의 모든 질문

을 추구하고 답변하는 'Q&A' 시간도 접혀 있다. 이번 컨퍼런스엔 한국리더십학교 CCC통일봉사단, 반디봉사단 등 23개 청년단체와 지역교회 북한선교부 및 청년모임 등에서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다음달 6일 오전 11시부터 숭실대 한경직기념관에서 2016 쥬빌리코리아(주교) 기도큰모임 청년대회가 열린다. '청년, 통일코리아의 가치를 들려'를 주제로 열리

가족세트전도 참관기

##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지역 교회 목사님들의 소개로 '가족세트전도아카데미' 강의를 듣기 위해 평내순복음교회의 성전으로 들어가 보니 동영상을 통해 전도 현장의 모습을 확인시켜 주고 있었다. 찬으로 놀라운 현장의 동영상을 보면서 한없이 교만하고 강박한 현대인들의 머리를 거칠없이 악수를 하며 영접을 시킨 주인공이 과연 누구일까 궁금하여 교회 내부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현수막에서 박영수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너무나 놀라고 말았다.

14년 전 내가 접하였을 때, 경기도 광주 퇴촌에 있는 퇴촌감리교에서 신유와 전도를 위한 특별집회를 순복음교회 박영수 전도사를 감사로 하여 열린다는 소문을 듣고 암 전단을 받고 고통스러워하는 친구를 부축하여 함께 그 집회에 참여했었다.

친구의 치료 목적을 위해 가장 앞자리에 자리를 잡고 두 손을 들어 긴장하며 기도하면서 집회 안에서 임제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박영수 감사님을 통해서 흐르기 시작한을 체험하기 시작했다.

나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끼면서 영호의 심충적인 곳에서 분출되어지는 사랑의 감동으로 몸부림치는 통곡을 하면서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시작했다.

또 집회 마지막 시간에는 그 시간의 보문을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일어서서 봉독이라는 말씀이 성경을 열었는데 그 본문이 바로 보여 일어나 봉독을 했다. 감사님은 그런 나를 앞으로 나오라고 하시면서 전도에 필요한 말씀 책자를 건네주시면서 집사님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하신 전도자입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었다.

그 집회를 마치고 나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머니



의 모태에서 생성하시기 전에 설리기운데 계획하셨던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일깨워 주셨다는 은혜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다.

나는 죽을 고비에서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어요"라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운명적인 경험 있다.

그러나 그 악속의 부담감을 크게 느끼면서도 그 악속을 미루면서 실천하지 않으면 적당히 종교생활에 만족하며 살아오던 중 박영수 목사님을 믿으로 하나님과의 악속을 실행할 수 있도록 전도자의 삶으로 완전히 전환되었던 것이다.

그 집회 이후 새벽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게 되었고 자비방으로 전도용품을 구입하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노방, 기기호방문, 병원학교, 노인장을 방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 과정 중에 아들은 신학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저 또한 기독교대학원대학교 소속 협성대학교에 3학년으로 편입하여 대학원을 졸업하게 되었고 지금은 목사가 되어 지구촌선교교회 담임으로 섬기고 있다.

14년 전에 내 인생을 복을 전도자로 전환하게 했던 잊을 수 없었던 성령의 능력 전도자였던 박영수 목사님을 다시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 생각이 된다.

예배를 마치고 일행과 함께 '가족세트전도 현장으로 나가 1시간 만에 20명 이상을 영접기도를 시키시고 전화번호와 집 주소를 받고 심방 약속까지 받는 모습을 보았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실증되는 기적의 전도현장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박영수 목사님을 14년 전에 성령의 능력으로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하셨고 지금까지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현시켜 나가며 죽은 영혼들을 살피는데 능력있게 사용하고 계심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이제 내가 섬기고 있는 지구촌선교 교회에도 능력전도 병법인 '가족세트전도' 방법을 적용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능력 있게 쓰임 받게 될 것을 확신하며 기대한다.

먼저 박영수 목사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전도의 기적의 현장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능력의 전도자 박영수 '가족세트 전도아카데미' 학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간증자 : 황찬호 목사 지구촌선교교회 담임

동영상: <http://blog.naver.com/by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5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 제2회 전국 고등학생 영어간증대회 성료

ACTS 주최 김서영 · 표신희 · 박수아 학생 등 8명 수상

제2회 전국 고등학생 영어간증대회가 지난 5월 7일(토) 경기도 양평군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ACTS)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 믿음성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자기 비리를 극복하고 지존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간증한 김서영 학생이, 소망상에는 대인학교를 다니며 선배와 친구들의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였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는 것이 자신의 꿈이라고 소개한 표신희 학생이, 시랑상에는 성경 구절들을 암송하는 것을 통해 믿음 생활을 잘 하게 되었고 미래에는 복음을 위한 선교사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한 박수아 학생이 받았다. 그리고 디설파 학생이 장려상을 받았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을 또래 친구들과 함께 나누며 다시 한번 은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 루터대-승실대 CR글로벌리더십연구소, 업무협약

### 연수프로그램 운영 등 학술교류

루터대학교(총장 김영옥)와 승실대CR글로벌리더십연구소(소장 최은수)는 지난 5월 9일 오전 11시 용

육 및 리더십 교육과정 개발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 양 기관의 학술 교류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두 기관은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글로벌 청의 인재 양성을 위한 인성교육 및 리더십 교육과정 개발 △CR(Compassionate Rationalism 윤리적 합리주의) 리더십의 활용 △우수 강사 인력풀 공유 △학생 및 교직원 리더십 연수 프로그램 개발 △양 기관의 추진 사업 및 행사의 홍보 △양 기관의 병문 및 시설 사용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영옥 총장은 "이번 협약으로 루터대 부설 인성교육원원장 이병호의 인성교육사 단기 양성 과정 프로그램 및 향후 개설될 교원과 일반 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성교육지도사 양성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승실대학교 CR글로벌리더십연구소의 전문 인력과의 협업 등 역할이 기대된다"며 21세기 청조화 사회에 걸맞은 청의 인재 육성에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 남일공예

50년 전통의 남일공예 입니다.  
남원 전통상, 목기, 교자상, 찻상, 병풍 판매합니다.  
본 제품들은 남일공예에 직접 생산하여 도매로 판매합니다.

좋은 원목으로 모든 공정을  
남원에서 직접 제작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교회 예배상 주문제작  
생산자 직거래라 비용이 저렴합니다

● 오시는 길 전북 남원시 쑥고개로 219(어현동 470-16)  
● 상담전화 063-632-3332, 8838 / 010-3651-7838 ● 택배판매 가능

YONSEI NANUM CLINIC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 130819-종-47402호

# 피부 · 성형 · 비만 클리닉 연세나눔의원

진료내용

1. 색소클리닉 2. 여드름클리닉 3. 흉터클리닉 4. 비만클리닉  
5. 성형외과(쌍꺼풀수술, 코수술, 지방흡입, 지방이식)

월 · 수 · 금요일 야간진료 오후 9시까지

(02) 2666-3616 우장산역 4번출구 미즈메디병원 옆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701-10 호경빌딩6층 [www.shareclinic.com](http://www.shareclinic.com)

# ‘총회주일’ - ‘교단역량 결집’

5월 15일(주일) 전국서 현신 다짐



제58차 총회 제1회 실행위원회 결의에 따라 지난 주일(5월 15일) 교단 신하 전 교회가 말씀을 통해, 성전예배를 통해, 크고 작은 행사를 통해, 친양을 통해 종회주일을 기념하고 특별히 소속된 교단 총회를 위한 교회의 현신을 다짐하는 시간을 전 성도들과 함께했다.

특히 총회장 진동용 목사는 “2차 총회에서 교단 총회 주일로 변경하여 정한 5월 셋째주일을 종회주일로 지켜 우리가 소속한 교단총회를 위해 기도”를 요청하고 “신의성실을 무기로 착함과 의료음과 진실함으로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교역자들과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강조한 뒤 교단 총회를 위한 현신을 당부했다.

전국교회에서 일제히 지켜진 종회주일은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교단

신하 전 지방회와 교회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다.

본 교단은 2007년 10월 한국과 세계에 교단의 대 통합을 알린 데 이어 2008년 5월 통합교단을 출범시켰다. 많은 회원 교회들이 뜻을 같이해 주었고 인정적인 발전을 더하기고 있으며 고질적 교단의 병폐였던 밀실정치를 뿌리뽑고 정체 총회로 발돋움하게 되었고, 한국 교회에 교단통합의 새로운 모범을 보이게 되었으며 명실공히 한국 교회 중심교단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런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전국 교회가 하나 되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준 것이 커다란 발전이 되었음을 기인한다 할 것이다.

총회는 5월 셋째주일 종회주일이 종회원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종회발전의 계기가 되었음을

믿는다.

이제 전국교회는 각기 형편에 따라 종회주일 한글에 적극 동참, 우리 교단의 종체적 역량을 집결하여 결집된 힘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역들을 이루어가게 될 것이다.

이 힘의 결집에 이미 많은 교회가 참여한 데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앞으로 모든 교회가 적극 동참하여 교단 발전과 하나님 나라 건설의 주체가 되어 주기를 교단 종회는 기대하고 있다.



## 교회와 교단의 부흥 위해 기도로 현신

### 전국사모연합회 제6차 정기총회 개최



신임 사모회장  
차추련 사모

전국사모연합회(회장 신동신 사모)는 지난 16일(월) 오후 2시 은혜와 진리교회 아기페성전에서 제6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한 회기 동안 사모회의 발전과 교회와 교단의 부흥을 위해 기도로 현신할 것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총회에 앞서 드린 개회예배는 사모회장 신동신 사모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회장 차추련 사모의 기도, 서기 오숙희 사모의 성경봉독, 교단 부흥사회장 신재영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신 목사는 롤 1:15-16 말씀을 본문으로 ‘자랑스럽게 여겨 아할 복음’ 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사모의 귀한 직분을 말씀과 기도로 감당해야 함”을 강조하고 “할 수 있는 대로 힘써 복음을 전하는 자랑스러운 복음의 사역자들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하고 한 회기 동안 현신한 임원진들과 회원들을 격려하고 축복했다.

이어 회계 조정에 사모의 현금기도 종무 박경미 사모의 광고 신재영 목사의 축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곧바로 이어진 정기총회에서는 각종 보고사항을 받고 임원선출에 들어가 신임회장에 차추련 사모를 선출했으며 일부 임원진을 기선했다.

회장 차추련, 부회장 한은정, 이은숙 종무 박경미, 협동종무 김숙향 서기 오숙희, 부서기 박경선, 회계 조정애, 부회계 김숙자, 재무 김귀순 감사 신명희



설교  
부흥사 회장 신재영 목사



직전 사모회장  
신동신 사모



제6차 전국사모연합회 정기총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신임원진

## 벨엘추모공원 건립기념감사예배



하나님께 순종한 고인들의 영원으로 가는 안식처인 동시에 가족과 성도들이 찾는 천만인 기독교인들을 위한 기독교추모공원 건립감사예배에 귀하를 초청합니다.

- | 일시 | 2016년 5월 26일(목) 오전 11시
- | 장소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 532-3
- | 주최 | 벨엘메모리얼파크
- | 후원 | 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 | 전화 | 1544-0442 (멤버쉽가입도 문의)



한국복음주의성강의록

임석순 목사 // 한복협 중앙위원, 한국중앙교회 담임



## 행하고 가르치는 스승

스승은 삶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의 가르침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삶은 회칠한 무덤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행 1:1,2>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거울처럼 길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눈이 많이 내린 날에는 앞서 간 누군가의 밭자국이 있으면 고마운 생각이 듭니다. 그 밭자국만 따라가면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승의 길이란 이렇게 길이 보이지 않는 곳을 위험을 무릅쓰고 가장 먼저 가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아할 길입니다. 선생은 다만 먼저 태어나고 먼저 배운 것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스승은 앞서서 길을 가는 사람이며 사명에 의해 삶을 통하여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은 인터넷에서도 선생은 많은데 스승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학교나 교회나 그리고 사회도 스승이 있어야 이 세상은 밝아집니다. 그러기에 이 땅의 스승으로 오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이 땅의 스승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승을 통해 꿈을 키우기도 하며 용기를 얻기도 하며 선택의 기로에서 답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러한 스승을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는 삶에 영향을 끼치는 진정한 스승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이 세상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할 핵심인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기운에서 그러한 스승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본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몇몇 통계자료가 보여줍니다. 1995년과 2005년의 종교부포도를 비교해본 결과 기독교는 성장비율이 74.4%인데 반하여 기독교는 -1.6%였습니다. 어떤 조사에서는 기독교를 신뢰한다는 사람이 18.4%였는데 그 중에서도 비기독교인은 6.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종교를 믿을 것인가? 물는 질문에 불교는 46.2%, 기톨릭은 43.1%인 반면 기독교는 27.3%였습니다. 도대체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기독교가 참 종교가 아니어서 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기도가 없어서 입니까? 전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봉사가 없어서 입니까? 아닙니다. 예전보다는 못하지만 지금도 범을 세워가며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또한 더운 때나

추운 때나 영혼 구원을 위해 애쓰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공동체도 떠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기독교는 봉사와 현신에 남다릅니다.

그런데도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스승이 없어서입니다. 수없이 많은 목사가 배출되고 박사 학위를 취득한 목사도 많은 오늘날 왜 스승이 없습니까? 왜 기독교는 세상의 스승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스승은 단지 가르치는 역할만 하는 사람이 아니며 경험의 많고 지식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스승은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스승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스승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에게 스승으로서의 복을 보이시면서 너도 이렇게 행함으로 스승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신약 생활을 어느 정도 한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행하는 자는 없습니다. 행하는 자가 없으니 스승이 없습니다. 스승이 없으니 기독교라는 공동체는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알기는하는데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나 할 것 없이 이기적, 자기중심적이고 그 안에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잡하시기 전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유다가 은신실에 주님을 팔것과 제자들이 배반하고 떠날 것도 이미 다 알고 계셨지만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기에 끝까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 주님 안에 갈등이 없었을 리 만무하지만 주님은 사람으로 내적인 갈등을 해결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갈등 기운에서도 이렇게 사랑하실 수 있었던 것은 유다를 보면서 네가 하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구나! (요 13:7)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다 안에 마귀가 들어가서 그를 조정하고 있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오히려 유다를 불쌍히 여겨셨고 마귀에 대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반드시 마귀와 씨워서 이겨야겠다는 각오를 하시고 결국 승리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의 상황이 바로 주님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이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끌까지 사랑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용납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인과 같은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아무리 불러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회칠한 무덤이고 종교에 불과합니다. 평안함도 용서도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가르치시면서 삶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의 스승으로 보내셨습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모두 삶이 가르침이 되는 스승이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 사설

### 교단의 새 임원진의 출범을 축하하면서…

교단 제16차 총동회가 성대히 거행되어 향후 1년간 교단의 발전을 위해 헌신할 새 임원진이 구성되었습니다. 시대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에 새롭게 선출된 임원들은 막중한 시대적 사명을 어깨에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는’ 미움으로 충성과 봉사의 사명을 딴다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새로운 성장세의 풍화와 신뢰도 추락 등 격류의 파도에 직면하여 이를 능히 헤치고 나아갈 협회와 추진력이 어느 때 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시분오열된 한국교회를 이단 사이비 세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물론 연합기구의 통합과제와 교회내에 깃수이 침투해온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세력과 맞싸워야 하고 실추된 한국교회의 신뢰회복을 위해 교회 본래의 자세인 거룩함을 회복하므로 무너진

신뢰를 복원시키는 중대한 사명을 부여받았다. 그동안 한국 교회에 비른 복음을 전파해온 우리 교단은 세상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에 진실과 공의의 바탕 위에 세워진 교단의 역할을 찾아야 할 것이다.

교단의 내부적 행정과 제도를 새로이 정비하여 회합·발전·도약의 총회로 만들어 일대 진보를 실현하는 한편, 교단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이어가고 법·교단적인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여 교단의 위상을 높이는 한회기 될 것이다.

2016 새 임원진이 한국교회가 밀 습과 기도로 거룩하게 회복되게 하는 역사를 위해 헌신을 흘려주시므로 거룩함으로 변화되게 하는데 초석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원 모두는 이를 위해 기도하고 성원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 박원순 시장, 동성애자 ‘퀴어축제’ 즉시 불허하라!

서울시가 또 서울시청 광장에서 동성애자들의 광란행사인 ‘퀴어문화축제’ 란 것을 6월 11일 개최할 수 있도록 장소 사용을 허가하였다. ‘퀴어문화축제’라는 것은 동성애 조장을 선동하는 반인륜적이고 반시민적인 행사이다. 그럼에도 박원순 시장이 행정권을 발동하여 불허 조치를 하지 않고 또 다시 허용한 것은 박

시장의 양심과 도덕적 이념이 과연 정상적인지를 의심해 하거나 영리 목적의 광고·판매행위, 혐오감을 주는 행위로 ‘서울광장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면서 서울광장 사용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시장은 지난해 서울광장에서 있었던 불법적인 행사 내용을 너무 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또다시 광장사용을 승인함으로써 시장의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동성애자들의 ‘퀴어축제’란 것은 반나체 행위나 동성 간 성행위 조장 행동 등 혐오 행위를 자행하여 보는 이들의 수치심을 안겨주는 등 탈법행위를 자행해 비난을 받아온 바 있다.

동성애 규탄 시민단체들은 또 ‘퀴어축제’를 하는 6.11부터 한주일 간 올바른 성문화 회복을 위한 ‘홀리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국민들에게 동성애의 폐해와 탈동성애운동의 중요성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도 이 행사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으며, 이율리 5월 중 한국교회 지도자 각성대회를 열고 동성애 혁신 및 협력 저지를 위해 기도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들의 수고와 노력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끊이지 않을 것을 바란다.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집고문 :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 발행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150-1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대길 5
-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 예수교대한경기남지방회 하나님의성회 다메섹교회 새성전 입당예배

감사



정부용 목사  
교단정책위원장  
대림벧엘교회 담임

담임



이원정 목사  
다메션복음교회 담임

일시 2016년 6월 18일(토) 오전 11시

예수교대한경기남지방회 하나님의성회 다메션복음교회(담임 이원정 목사)

경기도 광주시 현산로 130-40(초월읍 도평리 6-1) 031)765-2791, 010)6202-6312





**설교**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담임  
교단 정책위원장



**조남영 목사**  
가평순복음교회 담임  
교단 총회장

**일시** 2016년 6월 2일(목) 오전 11시

**장소** 가평순복음교회(담임 조남영 목사)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새말역로 6번길 3  
교회 : 031)582-2835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65차 총회

# 총회장 조남영 목사 취임 감사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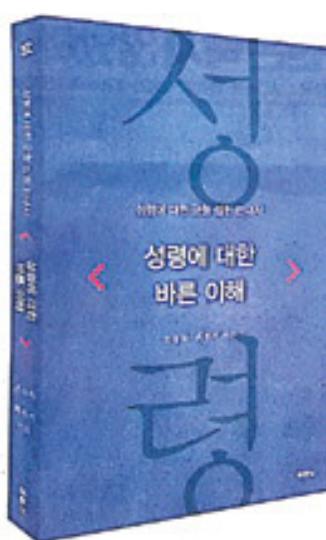
**초·대·의·글**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금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님과 중경총회장님들을 모시고 총회장 취임감사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뜻깊은 자리에 총회원 여러분들을 초대하오니 바쁘신 중에도 오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본 광고 지면으로 초대장을 대신하오니 양해바랍니다.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을 오해했다!” 잘못 알고 오해했던 ‘성령론’을 바로 잡는 책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

당신은 성령 충만한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는가? 그동안 한국 교회는 성령에 대한 왜곡된 시각과 가르침으로 크고 작은 혼란을 야기해 왔다. 이는 곧 성령의 바른 이해를 가린 채 은사우월주의, 번영신학으로 인해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케 했다. 이 책은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하여 성령론을 일목요연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 균형 잡힌 지침서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성령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성령 충만한 삶으로 안내할 것이다.

**왜 다시 ‘성령론’ 인가?**

책을 집필하기 전 저자의 고민은 ‘이미 수다한 성령에 관한 책이 출간되어 읽혀지고 있는 이 때에, 굳이 또 한 권의 책이 출간될 필요가 있는가?’였다. 그럼에도 출간을 결심한 것은 ‘성도들의 성령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가장 큰 이유였다. 신학의 여러 분야 가운데서도 유달리 성령에 대한 이해는 심지어 같은 교단이라 해도 다른 견해를 가지고 한다.

**저자** **조용목 목사** | 은혜와진리교회를 개척 설립해,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의 목자로서 바른 길의 안내자가 되어 주고 있다. 현재 한국신학회 이사장  
**자자** **최완기 목사** | 세인트루이스교회에서 30년 간 목회한 후, 현재 시카고에서 ‘4-14 원도우’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프라미스교회를 담당하고 있다.

성령에 대한 균형 잡힌 안내서

‘성령세례’와 ‘방언’, ‘신유’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계다가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심하게 왜곡될 경우 ‘신비주의’나 ‘온사주의’로 빠질 수 있기에, ‘성령론’의 연구와 올바른 안내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성령은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은 성령을 무엇이라 말하는가?

**성령은 힘이나 능력이 아니다, 성령은 하나님이다!**

저자는 성령을 알기 위해서는 더 깊이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성경은 신약뿐 아니라 구약에서도 성령의 일하심을 기록했고, 이는 태초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성령은 어떤 신비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늘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혜사이다. 이밖에도 ‘성령충만’의 올바른 이해와 ‘성령세례’, ‘온사’와 ‘열매’, ‘방언’과 ‘신유’ 등, 오직 성경을 근간으로 하는 이 책의 균형 잡힌 안내를 통해 한국 교회의 성숙과 뜨거운 성령 충만의 회복을 기대한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전국여교역자국

교단 제65차 정기총회가 은혜 가운데 성료됨을 감사드리고 총회장 조남영 목사님과 신임원진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조  
직**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임  
원  
단**

차장	기획실장	행정부장	설화부장	경조부장	예배부장	홍보부장	행사부장	복지부장	사회부장	선교부장	봉사부장
순복음천양교회 김효신 목사	일산별열교회 조영란 목사	추계교회 김찬애 목사	기장순복음교회 조병희 목사	회복의순복음교회 김순자 목사	순복음진리교회 김바울 목사	순복음비통교회 한순남 목사	예준순복음교회 최영희 목사	순복음경둔교회 이경자 목사A	군업순복음교회 김중애 목사	순복음침례은교회 조은주 목사	순복음기쁨과기쁨의교회 이명순 목사

**전  
국  
지  
부  
장**

서울중부지방회 지부장	서울강남지방회 지부장	서울중앙지방회 지부장	서울남서지방회 지부장	경기지방회 지부장	경기중앙지방회 지부장	경기남지방회 지부장	안산시홍지방회 지부장	경기북지방회 지부장	용인지방회 지부장	일산지방회 지부장	김포지방회 지부장
사랑과결핵교회 총현자 목사	순복음사랑교회 이현옥 목사	예수향기교회 장에스더 목사	반석교회 신은순 목사	온누리순복음교회 최금자 목사	행복한순복음교회 김정순 목사	힐튼신교회 김남순 목사	믿음교회 이경자 목사B	평생한생명교회 서석자 목사	김인희 목사	순복음상당교회 설수자 목사	임마누엘교회 이정애 목사
강원동지방회 지부장	강원서지방회 지부장	대전지방회 지부장	충북지방회 지부장	충남지방회 지부장	청주지방회 지부장	영남동지방회 지부장	부산지방회 지부장	광주지방회 지부장	전북지방회 지부장	전북서지방회 지부장	
성광교회 최정희 목사	바울기도원 정희자 목사	내화순복음교회 안선자 목사	대청산기독원 임연임 목사	솔로몬순복음교회 권옥자 목사	행복한순복음교회 김문자 목사	동영순복음교회 김덕숙 목사	순복음은혜 이순애 목사	순복음빛된교회 조은혜 목사	순복음엘림교회 배영래 목사	성령알곡교회 임경애 목사	임마누엘수양관교회 심혜원 목사
전라지방회 지부장	호남지방회 지부장	온진지방회 지부장									
성광교회 최정희 목사	바울기도원 정희자 목사	내화순복음교회 안선자 목사	대청산기독원 임연임 목사	솔로몬순복음교회 권옥자 목사	행복한순복음교회 김문자 목사	동영순복음교회 김덕숙 목사	순복음은혜 이순애 목사	순복음빛된교회 조은혜 목사	순복음엘림교회 배영래 목사	성령알곡교회 임경애 목사	임마누엘수양관교회 심혜원 목사

**국장 탁정신 목사**